

■ ■ ■ 신범식

시립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립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MGIMO)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

- 『러시아 이념』으로서 유라시아주의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역사적 전개와 한반도적 의미,『국제정치와 한국 4: 세계지역의 정치』
『유라시아 지정학적 환경변화와 러시아의 대응』,『국제정치논총』43집 4호
『교통의 국제정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국제화와 동북아시아』,『한국과 국제정치』19권 4호
『체제전환기 러시아지방정치의 제도화와 엘리트 분화』,『한국정치학회보』38집 3호
『푸틴 러시아의 근외정책』,『국제지역연구』14권 4호
『21세기 유라시아도전과 국제관계』(편저)

● 서론

- 정체성, 전략, 제도로서의 전통과 체제변동
- 문화적 전통으로 형성된 민족주의: 체첸과 타타르스탄 비교
- 결론: 문화적 전통 차이와 상이한 민족주의

민족주의와 문화 _타타르스탄과 체첸 공화국 비교

본고는 러시아 연방 내의 소수 민족인 타타르스탄과 체첸 민족의 러시아 연방화 과정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과 그에 따른 상이한 결과의 차이를 추적하여 민족주의에 대한 문화적 전통의 영향이 발현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나아가 문화가 지니는 정치적 의의 및 문화와 민족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여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특정한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요소가 민족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적 요소의 단독적 작용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전통이라는 문화와 사회의 소통공간을 통하여 발현된다. 이때 전통은 그 집단의 정체성, 엘리트의 변혁 전략, 그리고 제도라는 세 차원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민족주의 내지 민족주의 정책은 그 주체인 민족이 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문화에 기초한 이념으로서 제도를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기초하여 체첸과 타타르스탄 민족주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민족의 민족주의 발현과정에서 그 발전 경로의 차이는 일차적으로 지배 엘리트가 변혁 전략으로 선택한 정책의 차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전략의 선택은 역사·종교적 경험과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의 발현으로서 대중들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허용적 조건으로서의 정체성과 엘리트의 선택적 전략이 결합하여 나타난 제도적 요소는 다시 이후 타타르스탄과 체첸 민족의 민족주의가 공화국 민족주의 및 종교 민족주의로 각각 상이하게 발전하게 만든 경로적 경직성을 강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발전 경로 형성의 배경으로서 문화가 미치는 영향은 정체성, 전략, 제도로서의 전통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분석될 수 있다.

1. 서론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에 속하였던 공화국들은 모두 독립을 선언하고 15개의 독립국가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소련에 속하였던 몇몇 대표적인 ‘명목 민족(titular ethnicity)’들이 독립하였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러시아 연방 내에도 존재하였던 민족 문제는 여전히 러시아의 통합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연방적 통합성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체첸(Chechen)과 타타르스탄(Tatarstan)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러시아 연방 내의 이 두 소수민족은 소련 붕괴와 신(新)러시아 형성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모티브에 근거하여 ‘민족’이 주체가 되는 정치적 단위의 지위와 권한의 변화를 꾀한 대표적인 사례다.

러시아 연방의 통일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하였던 두 민족 타타르인과 체첸인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두 민족은 소련 내 다른 소수민족들과 마찬가지로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소련의 위기상황에서 민족주의적 정서의 부흥을 경험하였다. 타타르스탄은 1990년 8월에, 체첸은 1991년 12월에 국가 주권선언을 하였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1992년 러시아 내 다른 소수민족들과 달리 연방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두 민족은 이를 뿐이었다. 이들은 또한 1992년 4월에 있었던 새로운 연방헌법의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체첸과 타타르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분리주의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였다.¹⁾ 하지만 1994년 타타르스탄은 연방

1) Gail Lapidus and Edward Walker, “Nationalism, Regionalism and Federalism: Center-Periphery Relations in Post-Communist Russia,” in Gail Lapidus(ed.), *The New Russia: Troubled Transformation*(Boulder, CO: Westview Press, 1995), p.97; 김선래 · 황성우, “북(北)카프카즈 지역갈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슬라브 연구』 22권, 1호(2006); 박정호, “북 카프카즈(North Caucasus) 지역분쟁의 정치·경제적 요인 분석”, 『슬라브학보』 21권 2호(2005); 이유정, “체첸-러시아 분쟁의 역사 I”, 『카프카즈 저널』 제6호(2004); 이유정, “체첸-러시아 분쟁의 역사II”,

과 특수지위의 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한 반면, 체첸은 러시아군과의 전투에 돌입하게 된다. 이 차이를 두 민족의 민족주의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의 주요 탐구 대상인 ‘민족주의(nationalism)’에 대한 학설로는 스미스(A. Smith)류의 ‘자연적 실재론’이나, 겔너(E. Gellner)의 ‘국가와 문화의 혼합을 통한 근대국가론’ 그리고 앤더슨(B. Anderson)류의 ‘상상의 공동체론’ 등이 대표적이며, ‘민족’ 개념을 둘러싼 논의는 매우 복잡한 논쟁을 유발하였다. 이 난해한 논쟁에 가세하는 대신, 이 논문에서는 민족을 “자율적인 정치적 권위를 소유하거나 지향하고 있는 특수한 정치문화 및 영토와 연결된 사람들의 공동체”로 정의하고, 민족주의는 “민족을 단위로 하는 정치체를 도덕적 및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념 또는 공동사회가 민족을 형성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정치체가 지니는 합법성을 제공하는 이념”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²⁾ 이러한 정의는 다분히 민족을 문화적인 요인 보다 정치적인 요인에 따라 정의하는 경향에 가깝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정의에서도 문화라는 요인이 배제된 채 민족과 민족주의를 이해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타타르 인종그룹(ethnic group)과 체첸 인종그룹(ethnic group)은 민족이며, 이들이 민족주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나타난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바처럼 민족주의와 종교가 연계되는 현상과의 연속성상에서 타타르스탄과 체첸

『카프카즈 저널』 제7호(2004); 홍완석, “험난한 여정, 러시아의 체첸분쟁: 원인과 경과, 그리고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2005).

2) Mark Juergensmeyer, *The New Cold War? Religious Nationalism Confronts the Secular State*(Berker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6.

문제가 파악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상기 국가들은 독립을 이룬 후 새로운 국가형성의 이념으로서 종교적 민족주의가 부흥한 데 비하여, 체첸과 티타르스탄은 러시아 연방의 새로운 연방화 과정 중에서 자(自)인종그룹의 독자성 내지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및 정치적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체첸인과 티타르인도 분명한 자율적 정치 권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민족 및 민족주의의 주체로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이들을 ‘인종집단(ethnic group)’ 대신 ‘민족’으로, ‘인종성(ethnicity)’ 대신 ‘민족성’으로 지칭하겠다.

이러한 용어적 정의를 바탕으로 볼 때, 체첸 민족은 통제되지 않은 민족주의의 비타협성과 극단성으로 인하여 연방 중앙에 대한 무력투쟁을 통한 러시아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을 추구하였으나 러시아의 무력진압으로 철저한 파괴와 강요된 순응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반면, 티타르스탄 민족은 통제된 민족주의에 의한 타협성과 온건성으로 인하여 연방 중앙과의 타협과 거래를 통하여 “분할된 주권”을 향유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한 대조적인 사례로 드러났다. 이처럼 동일한 신러시아의 연방화(federalization) 과정이라는 조건 속에서 상이한 발전 경로를 걷고 있는 두 민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리더십의 전략적 선택에 입각한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일차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더십의 차이와 전략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든 배경에는 두 민족이 지닌 문화적 차별성이 작동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문화는 민족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결정적’이라는 의미와는 차이를 두고 싶다—변수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두 민족의 문화적 차이로부터

상이한 민족주의의 결과를 설명해 보려는 시도이다.

일찍이 베버는 그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저술을 통하여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문화적 요인이 경제 성장과 성공에 유리한 일상의 생활 윤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자본주의의 융성이라는 정치·사회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16~18세기 서유럽에서 개혁적 프로테스탄트 종교는 새로운 인격의 유형을 창출하였으며, 이러한 인격 유형은 이전과 비교하여 우발적이며 예외적인 유형이었지만 그 유형이 산업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의 사회에 대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베버류의 천착은 점차 그 중요성을 잃어갔다. 실증주의적 인식과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는 사회공학적인 사고를 더욱 강화시켰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붕괴한 러시아에서 자동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수립되지 않고 엄청난 혼돈의 시기를 보내면서 예상과는 달리 권위주의적 관리형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되어 가고 있는 과정은 결국 ‘자본주의’라는 제도도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문화라는 사실을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인정하게 되었다.³⁾

이처럼 문화의 문제는 21세기 국제정치학은 물론 거의 모든 사회과학의 중요한 화두이다. 문화의 차이를 통하여 경제적 발전과 성취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책자의 유행에서 나타나듯이,⁴⁾ 문화는 사회현상의 설명의 변수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해 가고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문화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갤너 같은 학자는 민족주의와 문화는 상호 구분될

3) William Pfaff, “Economists Hatch a Disaster,” *Boston Globe*(August 30, 1997).

4) Samuel P. Huntington and Lawrence E. Harrison(eds.), *Culture Matters*(New York: Basic Books, 2000).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진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에 도리어 문화를 통하여 민족주의의 외화(externalize)되지 않은 특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추론도 무리한 주장은 아닐 것이다.⁵⁾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의 설정과 관련된 개념적 및 기술적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해 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문화적 차별성을 드러내 주는 요소로서 역사적 경험의 상이성과 종교적 분파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정치문화의 특성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이 문화결정론의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아니다. 모이니한(Daniel Patrick Moynihan)은 “가장 핵심적인 보수의 진리는 사회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라는 주장이며, 가장 진보의 진리는 정치는 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따라서 정치를 자신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⁶⁾ 문화가 사회적 변화(혹은 발전)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정치—특히 권력 엘리트들의 전략적 선택과 정치과정을 통한 제도의 변화—가 비록 긴 시간을 요하더라도 문화를 바꾸면서 다양한 경로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는 점에 필자도 동의한다. 이는 티타르스탄과 역사적 경험 및 종교적 차이에 의해서 구분되는 체첸 사례 연구에서는 물론 체첸과 유사한 조건하에 처한 북카프카즈의 아웃한 또 다른 러시아 내 공화국인 다게스탄 사례를 통해서도 상이한 전략 및 정책이 가능했다는 사실로도 드러난다.⁷⁾

5) 문화와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 연구는 다음을 참조. C. R. Hoffer, “Nationalism and Cultu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1(February, 1938).

6) 다음에서 재인용. 새뮤얼 헨팅턴, 로렌스 해리슨(공편), 『문화가 중요하다』(서울: 김영사, 2001), p.10.

7) 체첸과 다게스탄 민족의 유사한 투쟁 환경과 상이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Elise Juliano, “Islamic Identity and Political Mobilization in Russia: Chechnya and Dagestan Compared,” *Nationalism and Ethnic Politics*, No.11(2005), pp.195-220; 정옥경, “왜 다게스탄은

그렇다면 이처럼 상이한 ‘문화’란 요소가 어떻게 체첸 민족과 타타르스탄민족의 상이한 민족주의를 낳게 된 것일까? 이 질문은 자칫 이 연구가 문화의 민족주의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밝히려는 시도로 오인되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질문이 상기시킬 수 있는 문화와 민족주의의 상호 작용이라는 토텔로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자는 문화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소통공간(interface)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통’ 개념으로, 문화관 바로 전통의 형태를 떠면서 한 사회나 민족 속에서 전수되기 때문이다.⁸⁾

한 민족이 국가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심대한 사회변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통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은 그 민족의 존속해 온 전통적 사회구조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여부일 것이다. 하지만 소련의 통제적 사회 속에서 이러한 전통적 사회구조가 존속되기에 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도리어 이러한 전통적 사회구조가 파괴된 경우에는 엘리트의 리더십이 전통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가 특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변동기에 지배 엘리트는 전통 속에서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여 활용하거나 아니면 전통을 ‘재발명(reinventing)⁹⁾’하므로 변화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결국,

체첸과 다른가?”, 『카프카즈 저널』 제3호(2004).

- 8) 사회변동과 전통의 관련성에 대한 접근법은 다음 연구의 접근법을 참조하였음. Yong-Chool Ha, “Late Industrialization, the State, and Social Changes: The Emergence of Neofamilism in South Kore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4(2007), pp.363-382.
- 9) 흉스바움의 “전통의 발명”과 그에 따른 종교적 정체성과 전통의 문제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Essays on Invented Traditions throughout the World*(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J. W. van Henten and A. Houtepen(eds.), *Religious Identity and the Invention of Tradition*, Papers read at NOSTER Conference, Soesterberg, Netherlands, January 4-6, 1999(STAR- Studies in Theology and Religion, 3, 2001).

사회 변동의 상당한 결과들은 지배 엘리트가 전통에 대하여 취하는 입장에 따라서 결정되며, 그런 의미에서 “전통이란 지배 엘리트들에 의하여 합의된 문화적 연속성”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은 결국 엘리트가 변화를 위해 내세우는 이념 및 실천을 위한 정체성과 전략과 제도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장소이며, 동시에 문화와 사회의 소통공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러시아 연방 내의 소수 민족인 타타르스탄과 체첸의 연방화 과정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의 상이한 노선과 그 결과의 차이를 추적하여 민족주의에 대한 문화적 전통의 영향이 발현되는 과정을 드러내 줌으로써 문화가 지니는 정치적 의의를 드러내는 사례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러한 사례 연구가 문화와 민족주의의 상관 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여의 가능성은 탐구하려는 목적으로 연구되어졌다.

2. 정체성, 전략, 제도로서의 전통과 체제변동

체첸과 타타르스탄의 민족주의를 문화와의 상관성 속에서 연구함에 있어서 1950년대 이후 인종적 및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한 이론적 담론으로 발전해 온 세 접근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⁰⁾

첫째는 생래주의(primalism)적 접근이다. 이 시각은 민족성(ethnicity)은 개인 내지 집단의 고정된 속성으로, 민족적 구분과 갈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한다. 스미스 같은 이들은 어떠한 인종적 민족주

10) 이와 같은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Crawford Young, *The Rising Tide of Cultural Pluralism: The Nation-State at Bay?*(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3).

의이든지 일단 발홍되기 시작하면 강력한 민족적 자치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그 지역을 장기적이고 지난한 투쟁의 장으로 변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하였다.¹¹⁾ 하지만 이 시각은 민족 분규와 사회·정치·경제적 분규를 분리시킴으로써 어떻게 정체성을 변화하며, 왜 역사의 특정 국면에서 민족 분규가 발생하며, 또한 왜 민족주의적 정치엘리트들이 다른 종류의 목표와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¹²⁾ 따라서 이러한 생태적 접근법으로는 타타르스탄 정부가 그 타타르 민족의 근본주의적 민족주의 정서의 발홍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의 다양한 인종집단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발전시키는가에 대해서 답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접근법은 인종집단 자체의 행동과 그 행동의 이면에 깔린 강력한 정서적 요인에 의하여 강화되는 사회적 권력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의 의미만을 강조함으로써 엘리트들의 선택과 전략의 측면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도구주의(instrumentalism)적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민족성(ethnicity)을 개인이나 엘리트들이 더 많은 권력과 이익을 얻는 데 이용하는 도구로 파악한다. 그래서 민족성은 넓은 의미의 정치 과정과 연계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 목적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주어진 기존 국가구조 내에서 공동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규정된 지리적으로 집중화되어진 같은 인종 그룹들은 매우 강력한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화되어진 민족성이란 또 하나의 정치적 조작의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민족 분규도

11) 이와 같은 원초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주장은 다음을 참조. Anthony D. Smith(ed.), *Ethnicity and Nationalism: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ology and Social Anthropology*, Volume LX (New York: E. J. Brill, Leiden, 1992), pp.5-7.

12) David Lake and Donald Rothchild, "Ethnic Fears and Global Engagement: The International Spread and Management of Ethnic Conflict," policy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Institute of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1996), pp.6-7.

좀 더 커다란 정치 갈등의 틀 속에서 연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 도구주의적 접근은 정치체제 연구에 인종그룹이라는 요소를 더함으로써 구조기능주의나 네오마르크스주의 또는 합리적 선택 이론과 결합하여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민족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속성을 간과하고 있다. 민족성이란 사회적으로 체득되어진 것이며, 따라서 관계적 틀 속에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접근법은 민족성의 심리적이면서도 문화적인 차원을 무시함으로써 민족(인종) 분규의 강도를 설명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¹³⁾

셋째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도구주의적 접근법이 간과하는 민족성의 사회적 기원과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관계적 틀의 구성을 추구한다. 민족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민족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와 함께 변화해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민족성 그 자체가 갈등적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구성주의적 접근법을 옹호하는 학자들에게 민족 분규는 도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 엘리트의 권력이나 자원 및 기타 가치를 위한 이기적 목적을 향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병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민족 분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체제가 발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구성주의적 접근법은 지도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전략이 단순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사실 사회적 조건이란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위한 “허용적 환경(permissive environment)”으로서 필요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도리어 정책은 지도자 내지 지배 엘리트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다.

13) Young(1993), p.22.

구성주의적 접근이 최근 학계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 접근법만으로는 타타르스탄의 민족 조화적 정책과 체첸의 갈등에서 작동한 문화적 요소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충분치 못하다. 지도자의 특성과 권력 진출 과정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상술한 접근법들의 부분적 성과를 종합하여 체첸과 타타르스탄의 민족주의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제기된 양 민족의 전통의 성격이 각각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밝힌 바처럼 전통은 세 차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정체성의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변동을 위한 엘리트의 전략의 차원이고, 마지막은 이념이 구현되는 제도의 차원이다.¹⁴⁾

첫째, 전통은 행위자 집단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타(他)집단과는 어떤 이유와 근거로 구분하는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역사적 경험과 종교적 경험의 유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타르스탄 민족과 체첸 민족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전통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그 인종 집단이 겪어 온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강조할 것이다. 러시아 연방에 속한 타타르스탄 민족과 체첸 민족은 상이한 역사적 기억을 지닌 집단들이다. 그들이 러시아 제국 또는 소련과 상호 작용하여 온 역사적 경험의 차이는 이들 두 인종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전통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또한 이들은 모두

14) 이러한 논의에 대한 바탕으로 규범적 내지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에서 이야기하는 이념(idea), 이익(interest), 제도(institution)의 상호성에 대한 논의가 언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Peter A. Hall, and Rosemary C. R. Taylor,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44-5(1996), pp.936-957; Richard W. Scot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2nd edition(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1). 또한 전통의 문제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행동을 정체성, 생존 전략 및 제도적 작동의 차원에서 다룬 접근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a(2007), p.366.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취급되기 어려운 신조적 차이를 가진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교적 차이는 이들 두 민족 집단 사이의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를 구성하는 유의미한 지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족성의 사회적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역사적 경험의 차이와 더불어 문화적 차별성의 중요한 한 요인으로서 종교적인 차별성에도 주목해 볼 것이다.¹⁵⁾ 이는 이슬람 내의 분파인 수니파와 시아파에 차이로부터 시작하여, 근본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와하비즘에 대한 입장과 수용 여부의 차이에도 주목해야 함을 의미한다.¹⁶⁾

이러한 역사적 종교적 차이에 기반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여 타타르스탄과 체첸의 상이한 연방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 행태를 추적하는 방식에 대한 방법론상의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요소가 문화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경험에 대한 기억과 종교적 신조는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민족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전략 차원의 전통이다. 이 때 해당 집단의 엘리트가 자(自)집단의 생존과 변혁 및 발전을 위해 채택하는 전략적인 선택은 전통 내지 전통이라 합의된 요인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수 민족의 리더십의 전략적 선택은 문화적 기저의 발현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¹⁷⁾ 신러시아의 연방화 과정에 대한 대응 전략의 차이는 타타르 및 체첸 두 민족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15) Alexander Agadjanian, "Religious Pluralism and National Identity in Russia,"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2-2(2000).

16) Van David Biema, "Wahhabism: Toxic Faith?," *Time*, 162-11(September 15, 2003).

17) David Brown, "Why Independence? The Instrumental and Ideological Dimensions of Nation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45(2004).

특히 타타르스탄과 체첸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이민족과의 공존에 대한 태도, 종교적 민족주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외부 이슬람과의 연계에 대한 태도 등은 전략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셋째, 제도로서의 전통이다. 원래 제도는 구조와 인식, 집단적 질서와 그를 조건지우는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문화적 기제로서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어머니이며 제도는 자식이다”라는 애통가 망겔의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동시에 정치에 의해서 촉발된 제도적 변화가 문화의 변화와 전통의 재규정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는 이러한 문화적 성격 외에도 사회적 성격을 강력하게 내포한다.¹⁸⁾ 사회학적 내지 규범적 제도주의자들은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가 제도 내에서 행위자들의 행동을 유도한다고 과학함으로써 제도적 규범이나 공식적 규칙이 제도 내 행위를 형성하는 요소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술한 두 민족의 엘리트의 전략은 사실 그 민족의 제도적인 영향하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타타르스탄과 체첸의 민족 분규에서 드러나는 민족주의의 발현의 장으로서 제도라는 전통의 속성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화국 민족주의’와 ‘종교적 민족주의’의 제도적 성격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설명할 것이다.

결국, 독자적인 집단 정치행위를 지향하는 민족주의라는 이념이 전통이라는 소통공간 속에서 민족 집단으로 하여금 어떻게 스스로를 느끼게 하고, 스스로를 주장하게 하고, 스스로를 제약받게 만드는가를 체첸과 타타르스탄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상이한 두 민족의 진로를 설명해 볼 수

18)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을 참조. Walter W. Powell and Paul J. DiMaggio(eds.),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은 결국 엘리트가 변화를 위해 내세우는 이념 및 실천을 위한 정체성과 전략과 제도의 차원으로서 제공되는 문화 발현의 장소이며, 동시에 문화와 사회의 소통공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전통의 틀 속에서 해석되는 문화는 훨씬 더 생생하게 드러난다. 생태주의적 설명방식에 따라 문화란 내재적인 것으로 고정된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도구주의자적 설명에 따라 문화가 상징적·조작적·도구적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화가 지닌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구성주의적 시각은 문화를 사회와 개인을 매개하는 그 어떤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문화가 지니는 특성에 한발 다가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며물러서는 안 되며, 문화는 내재적인 특성과 동적인 특성을 모두 지니면서 행위자의 정체성과 전략적 선택과 제도적 변화와 관계되는 ‘비공식적인 제약’²⁰⁾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는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정체성과 제도의 사회성 그리고 집단의 전략의 수준으로 이해되는 전통의 매개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족주의와 민족주의 정책은 그 주체인 민족이 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문화에 기초한 이념의 제도적 특성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체첸과 타타르스탄의 민족주의를 역사적 경험과 종교적 차이, 제도의 사회적 배경, 엘리트의 정책이라는 요소를 통하여 차별화함으로써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문화적 기제를 밝히도록 할 것이다.

19)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논의와 비교하면 흥미로운 주제를 제공한다. Karl W.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2nd edition(Cambridge, MA: MIT Press, 1996).

20) Douglass C. North,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37.

3. 문화적 전통으로 형성된 민족주의: 체첸과 타타르스탄 비교

체첸과 타타르스탄의 민족주의의 상이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과정은 발견 내지 발명되는 전통의 세 차원, 즉 역사적 경험 및 종교적 영향으로 형성된 정체성 구조, 리더십의 변혁을 위한 노력과 대중의 지지가 결합된 전략의 지향성,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이념의 제도적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잘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1) 역사 · 종교적 경험과 정체성: 복합적 정체성과 배타적 정체성

역사적 경험

타타르 민족과 러시아 민족의 본격적인 상호 작용은 15세기 초 킁차크 한국이 몰락한 이후 카잔, 아스트라한, 크림, 시베리아 등 러시아 영토에 생겨난 타타르 국가들이 탄생하면서부터다.²¹⁾ 1445년 건설된 카잔한국은 카잔을 중심으로 바시키르, 추바시, 마리 등의 민족체가 파생된 모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타타르스탄은 카잔한국의 핵심 지역으로서 투르크—이슬람 전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제정 러시아의 통치하에서도 타타르인들은 피치자의 입장에서보다는 불가장 유역에서 발전된 문화를 지닌 또 하나의 문명임을 자부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타타르 혜게모니’로서, 타타르 문명은 중앙아시아 문명을 개화시키는 역할을 한 바도 있다. 카잔한국은 1552년 러시아 이반 뇌제에 의하여 러시아 제국에 병합된다. 그리고 러시아인이 유입되면서 일부 타타르인들은 자의와 타의에 의하여 러시아

21) 타타르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이하의 기술은 다음을 주로 의존하였음. 김인성, “러시아 연방체제와 타타르스탄 민족주의”, 『민족연구』 제8호(2002), pp.126-127.

정교로 개종하게 된다. 1592년 이슬람 사원의 대대적인 파괴가 진행되었고, 1776년 이후 계몽 군주 예카테리나 2세 시기에 이슬람 사원의 재건이 허용되었다. 타타르인들은 그 이후 러시아 제국의 신민으로 100여년 이상의 공존 및 동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사회주의 혁명의 시기에 타타르 민족주의가 발흥하여 타타르와 마리, 바시키르, 추바시 등을 아우르는 ‘볼가—우랄 국가’의 창설을 시도하였지만, 1920년 볼셰비키에 의해 ‘타타르 소비에트 자치 공화국’으로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에 편입되어, 다시 소비에트 동화정책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공존의 기간을 보낸다. 구소련체제의 수립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비에트 공화국의 지위를 차지한 반면, 타타르스탄은 바시키르, 추바시 등을 영토에서 배제당한 채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내의 하위단위인 자치 공화국으로 편입되었다. 이 사실이 타타르인들에게는 수치로 여겨졌으며, 그들은 소비에트 공화국으로의 승격을 희망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산당에 승격을 건의했지만, 당 지도부는 지위승격 대신에 소비에트 공화국들이 지니는 특권을 부여하며 타협을 요구하였다. 이를테면 타타르스탄 공산당 서기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일원이자 소련 최고 소비에트 의장단의 구성원이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군수산업 시설과 거대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도록 배려하였다.²²⁾

1980년대 말, 폐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타타르 민족주의와 주권 획득에 대한 열망은 다시 고조되었고, 타타르 민족주의자들은 1917년에 시도되었던 과거 카잔한국의 영토를 아우르는 볼가—우랄 타타르 국가의 독립을 추진하였다. 1990년 8월 30일, 타타르 자치 소비에트

22) Kimtaka Matsuzato, “From Ethno-Bonapartism to Centralized Caciquismo: Characteristics and Origins of the Tatarstan Political Regime, 1990-2000,”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17-4(December, 2001), p.49.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는 “타타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주권선언”을 채택, 발표하였다. 주권선언문 제1조에서는 “타타리야(Tatariya)는 주권국 가임을 선포하며 이를 타타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타타르스탄 공화국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권선언 후,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소연방 지도부와 소비에트 공화국으로의 승격에 관한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한편, 러시아 공화국 지도부가 타타르스탄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설득에 나선다.²³⁾ 그러나 1991년 8월 보수 쿠데타로 인해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신연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고, 1991년 12월 말 구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소련체제 내에서의 주권 공화국 지위의 획득이라는 타타르스탄의 계획은 무위로 끝나게 된다.

한편, 씨족 공동체의 영향하에 비교적 사회·경제적 조건이 낙후되었던 체첸 민족은 17세기에 들어와서야 봉건제 사회로 이행하게 되었고, 18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러시아인들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18세기 오스만 투르크 및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 제국은 북카프카즈를 자신의 보호령으로 병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사회·경제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예카테리나 2세 시기에 크림 지방의 타타르를 패퇴시킨 이후 1785년부터 체첸을 포함하는 북카프카즈 지방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하였다.²⁴⁾

이에 8세기부터 북카프카즈에 전파되기 시작한 이슬람은 16세기경에 이르러서야 체첸 민족의 종교가 되었으며, 18세기에 들어서야 체첸 민족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이맘 만수르

23) http://www.kcn.ru/tat_ru/politics/pan_for/wb0.htm(검색일: 2007. 3. 2).

24) 체첸-러시아 갈등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세진, “체첸전쟁의 기원: 러시아와 체첸의 역사적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0-2(2005).

(Mansur)가 있었다. 그는 강화되어가는 러시아의 영향력에 맞서서 대(對) 러시아 투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슬람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파즘의 스승으로 근본주의적 교의를 전파한 만수르는 체첸을 포함한 북카프카즈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군사봉기를 조직화하고, 체첸의 종교적·정치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교리를 통한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이슬람법에 기초한 샤리아(법체계)에 따른 정치를 실현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인 러시아인들에 대한 투쟁의 과정을 자하드(Jihad)로 규정함으로써 체첸 이슬람의 정신적 지주이면서 19세기에 잠시 실현된 북카프카즈 신정국가의 아버지(founding father)가 되었다.

1813년 페르시아와의 콜리스탄 조약을 통하여 북카프카즈 지역을 공식적으로 복속시킨 러시아는 강력한 식민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었으며, 러시아와 체첸의 투쟁은 뒤따른 카프카즈 전쟁(1817~1864)에서 그 주무대인 체첸을 중심으로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 카프카즈 전쟁을 주도한 조직은 수괴형 체단으로, 그 지도자였던 샤밀(Shaykh Shamil)은 위대한 성전의 지도자로 강력한 카프카즈의 무슬림 단일국가의 건설을 추구하였다.²⁵⁾ 어려운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벌어진 체첸을 필두로 하는 산악 민족들의 잦은 약탈공격과 러시아의 강압적인 식민주의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이 전쟁은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 그리고 러시아는 카프카즈 민족에 대한 기만적 회유책과 더불어 세 차례에 걸쳐 60~80만 명의 카프카즈 거주자들을 오스만 투르크로 강제 이주 시켰고, 이중 10만 명이 체첸인 디아스포라로 남게 되었다.

혁명과 함께 적군(赤軍)의 일시적 선동에 의해 체첸을 비롯한 북카프

25) 황성우·김선래, “북(北)카프카즈 지역갈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체첸 공화국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22-1(2006), pp.152-154.

카즈의 민족주의는 고양되어 북카프카즈 공화국이 탄생되기도 하지만, 볼셰비기는 내전이 끝난 뒤 1922년 군대를 파견하여 소련에 복속시킨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문서들에 의하면 소련에 복속된 뒤에도 1940년대까지 체첸인의 무장독립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7년 이래 체첸-잉구세티아 자치 공화국으로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구성하고 있었던 체첸 민족의 비극은 스탈린에 의하여 45만 명이—이중 아주 과정에서 8만 명이 사망하였다—단 며칠 만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사건에서 정점을 이룬다. 흐루시초프 시기 이들의 귀환이 허락되지만, 이 과정 또한 기존 정착민이 되어버린 많은 러시아인들과 체첸인 사이의 갈등을 수반하는 과정이었다.

억눌려 있던 체첸의 민족주의적 정서는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다시 고양되기 시작하였으며, 소련 해체가 기정사실화되어버린 1991년 10월 두다예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에 엘친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로즈니에 공화국 군대를 파견하여 독립운동의 기운을 제어하게 된다. 이로써 체첸 민족과 러시아의 반복되는 투쟁의 역사가 재연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요인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구소련 공화국들 중에서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즈 지방의 공화국들 중 상당수는 이슬람을 명칭 민족의 전통문화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명칭 민족의 민족주의가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²⁶⁾ 특히

26) 탈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이슬람 민족주의적 발흥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 Alexander Agadjanian, “Revising Pandora’s Gifts: Religious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Post-Soviet Societal Fabric,” *Europe-Asia Studies*, 53-3(2001); Joseph F. Fletcher and Boris Sergeyev, “Islam and Intolerance in Central Asia: The Case of Kyrgyzstan,” *Europe-Asia Studies*,

이들 독립 공화국들의 경우에는 독립된 국가건설의 이념으로 종교를 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다. 타타르스탄이나 체첸의 경우 러시아 연방의 구성 주체로서의 지위를 넘어 독립적 내지 주권적 지위를 지닌 ‘민족 정치체(ethnic polity)’를 형성하려 노력하는 상황에서 종교적 민족주의의 발흥은 매우 위험스런 현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양 민족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의 차이도 이미 그 역사적 경험 속에서 차이를 배태하고 있었다.

우선 타타르스탄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슬람 파벌 중에서 수니 이슬람의 전통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이슬람의 정통적 법통을 잇는 파벌로 여길 뿐만 아니라 정교 일치의 전통 속에서 세속 권력과 종교의 공존 내지 혼합을 피하는 가운데 종교가 공식화 내지 세속화 되는 경험을 가졌다. 이러한 수니 전통에 속한 이슬람 교도인 타타르스탄의 주민들은 소비에트 시기를 거치면서 이슬람에 대한 시각들이 더욱 변화하여 이슬람의 강한 종교적 교의로서 기도나 금식 등의 종교적 전통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이슬람의 세속화 과정과 소비에트 시기의 탈종교화 정책의 영향은 타타르스탄에서 이슬람 요소가 국민들의 정체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첸인은 다른 카프카즈 지방의 무슬림들과 마찬가지로 시아파에 속한다. 시아파의 기원이나 페르시아가 수니 이슬람에게 정복당하고 시아파를 선택하면서 널리 퍼진 발전과정이 보여주듯이 이 종파에는 저항적 요소가 강하다. 더구나 시아파는 그 발전 및 전파 과정에서 동방기원의 이교적 요소가 유입되면서 많은 암살교단 등을 역사 속에서 배출한 경험도

54-2 (2002); Shahram Akbarzadeh, “Why Did Nationalism Fail in Tajikistan?,” *Europe-Asia Studies*, 48-7(1996).

가지고 있으며, 반(反)기독교적 저항의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교의에 있어서도 더 원칙적이다.²⁷⁾ 이러한 시아파로부터 신비주의적 요소를 가진 이슬람의 수파즘 분파가 형성되었던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특히 이를 수파즘적 전통에 있어서 지하드(聖戰, Jihad)는 무슬림들의 개인적이면서도 내적인 종교 투쟁으로 이해된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체첸의 시아파 중에서도 수파즘에 경도된 낙수반드파가 아니라 좀 더 저항적 충돌에 경도된 카디리아파가 체첸의 초대 대통령 두다예프가 소속되었던 종파였다는 점은 그가 왜 종교 민족주의의 성립과 배타적 정책을 선호하였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²⁸⁾ 더구나 탈소비 에트 혼돈의 시기에 아랍 세계로부터 시작되어 북카프카즈를 통해 유입된 와하비즘은²⁹⁾ 수파 무슬림과 달리 지하드(Jihad)를 극단적인 외적 투쟁의 형태로 이해하였으며, 이는 정교일치 전통하에서 종교 민족주의의 형태에 가장 근접하는 분파를 체첸 내에서 형성 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체첸의 무장투쟁 과정에서 이슬람적 요소는 자신들의 러시아와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조직화하고 가시화하는 요소면서 동시에 그 수단이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드러난다.³⁰⁾

-
- 27) 손주영, “오늘날 이슬람 사상의 동향: 근대 이슬람 세계의 개혁주의와 부흥운동”, 『이슬람 사상의 형성과 발전: 이슬람 종파 형성과정과 현황 연구』(서울: 대우학술총서, 2000).
- 28) Б. Сергея, “Место ислама в современной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Чече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Россия и муслманский мир*, No.8(2003).
- 29) Galina M. Yemelianova, “Sufism and Politics in the North Caucasus,” *Nationalities Papers*, 29-4(2000), pp.666-667; 현승수, “북카프카즈와 ‘와힙주의 문제’의 기원”, 『슬라브연구』 20권 1호(2004).
- 30) 대표적으로 다음을 참조 C. Ц. Умаров, “О роли исламского фактора в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борьбе народов Чечено-Ингушетии,” *Нород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е движение горцев Дагестана и Чечни 20-50-х годах 19 века* (Махачкала, 1994); Stephen R. Bowers, Yavus Akhmadov and Ashley Derrick Ann, “Islam in Ingushetia and Chechnya,” *The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29-4(2004); Moshe Gammer, “Between Mecca

정체성의 구조

이러한 역사적·종교적 경험의 차별성은 두 민족 속에 상이한 정체성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타타르스탄의 경우 러시아인과 타타르인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의 용인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오랜 러시아 민족과의 상호 작용 및 공존의 결과로서 상호 동화의 정도가 높으며 협력과 탐험 및 공존의 전통을 발전시켜 왔음을 의미한다.³¹⁾ 이에 비하여 체첸의 경우에는 복합적 정체성에 대한 승인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그것은 아직도 존재하는 배타성의 정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중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민족 정체성의 특징을 다룬 한 연구에서 이러한 양 민족의 자의식과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가 나왔다(〈표 1〉 참조).³²⁾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타타르스탄인은 체첸인에 비하여 자민족 공화국 영토 내에 같이 거주하는 러시아 민족 및 다른 민족에 대한 수용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³⁾ 이러한 상대적 비교가 지니는 한계를

and Moscow: Islam, Politics and political Islam in Chechnya and Daghestan,” *Middle Eastern Studies*, 41-6(2005).

31) F. Ibiatov, “Tatar National Perception,” *International Affairs*, Vol.51(2005).

32) Dmitry Gorenburg, “Regional Separatism in Russia: Ethnic Mobilization or Power Grab?,” *Europe-Asia Studies* 51-2(March, 1999); Dmitry Gorenburg, “Nationalism for the Masses: Popular Support for Nationalism in Russia’s Ethnic Republics,” *Europe-Asia Studies*, 53-1(January, 2001).

33) 또 다른 연구에서도 타타르스탄인은 종교적 및 문화적 이유에 의한 차별성보다 러시아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수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Е. А. Шумилова, Е. А. Ходжаева, “Особенности стано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мусульман в Татарстане,” В. С. Магун(Ред.), *Гражданские, этнические и религиозные идентичност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ститута социологии РАН, 2006).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된 러시아 16개 공화국 전체의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타타르인들에게 나타나는 러시아인들과의 동화 내지 그 수용의 정도는 16개 공화국 중 3~4위를 기록하는 반면, 체첸의 경우는 15~16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타타르스탄의 경우 러시아 국민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혜택에 대한 만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⁴⁾

〈표 1〉 체첸인과 타타르스탄인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³⁵⁾

질문	응답 결과
1. 명목민족의 언어를 유일한 공화국 언어로 사용하여야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첸 : 찬성-69%, 모르겠다-9%, 반대-22% 타타르스탄 : 찬성-29%, 모르겠다-13%, 반대-59%
2. 공화국 내 모든 주민은 명목민족 언어를 배워야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첸 : 찬성-78%, 모르겠다-5%, 반대-17% 타타르스탄 : 찬성-44%, 모르겠다-24%, 반대-32%
3. 명목민족 언어에 대한 강제교육을 공화국 내 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첸 : 찬성-94%, 지역내 다수인 경우에-4%, 모르겠다-0%, 반대-2% 타타르스탄 : 찬성-66%, 지역내 다수인 경우에-14%, 모르겠다-10%, 반대-10%
4. 구소련 시기 자치 공화국이 행한 주권선언을 지지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첸 : 찬성-85%, 모르겠다-10%, 반대-5% 타타르스탄 : 찬성-56%, 모르겠다-39%, 반대-5%
5. 모든 러시아 연방 내 공화국은 연방 틸퇴의 권리를 가져야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첸 : 모두 가져야 함-79%, 일부가 가져야 함-12%, 모르겠다-5%, 반대-3% 타타르스탄 : 모두 가져야 함-26%, 일부가 가져야 함-27%, 모르겠다-39%, 반대-8%
6. 군대 및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공화국이 연방정부로부터 넘겨 받아야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첸 : 찬성-70%, 모르겠다-18%, 반대-12% 타타르스탄 : 찬성-42%, 모르겠다-40%, 반대-19%

34) Elise Giuliano, "Who Determines the Self in the Politics of Self-Determination? Identity and Preference Formation in Tatarstan's Nationalist Mobilization," *Comparative Politics*, 32-3(2000), pp.312-313.

35) 본래 이 설문조사는 Timothy Colton, Jerry Hough, Susan Lehman, Mikhail Guboglo 등의 팀이 1993년 11~12월 중에 러시아 각 지방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000명의 응답자에게 그들의 투표행태에 대한 인터뷰 조사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설문문항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의식과 민족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내포하고 있었기에 Gorenburg(2001)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2〉 타타르스탄과 체첸 민족의 역사 · 종교적 비교

구 분	타타르스탄	체첸
러시아 민족과의 상호작용	동화 기간	460년 이상의 러시아 지배 (1552년~현재)
	상호작용 형태	러시아 지배구조 속에서의 경쟁과 상호 의존의 공존
	러시아체제에의 동화정도	역내 러시아인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러시아인에 대한 관용성 높음.
종교적 특성	세속화 진행된 수니파	수피즘적 시아파 전통이 강함. 탈냉전기 와하비즘을 적극 수용.
정체성	복합적 정체성의 승인도가 높음	복합적 정체성의 승인도 낮음.
정치문화와 민족주의 형태	문민주의와 공화국 민족주의	군사주의와 종교 민족주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자면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타타르스탄의 민족주의와 체첸의 민족주의가 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상이한 형태로 발전하였다는 설명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슬람 근본주의 현상은 같은 체첸 내에서도 제1차 체첸전쟁(1994년) 시보다 제2차 체첸전쟁(1999년)에서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고 한다.³⁶⁾ 즉, 1차 전쟁을 치른 이후 체첸에서는 이슬람의 정치화와 과격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된 것이다. 또한 자주적 정치체 수립이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타타르스탄은 공화국 민족주의에 입각한 공존적 제도를 형성시키는데 비교적 성공한 반면, 체첸은 종교적 민족주의가 과격화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동일한 주체에 의한 이슬람 민족 주의화라는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문화적 요인 내지 정체성 인식이 상이한 민족주의 형태를 설명하는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함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두 민족의 정체성 내지 의식의 차이가 상이한 민족주의의

36) Katrien Hertog, "A Self-fulfilling Prophecy: The Seeds of Islamic Radicalisation in Chechnya," *Religion, State & Society*, 33-3(September, 2005).

결과를 설명해주는 ‘허용적 환경’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2) 엘리트의 선택과 변혁의 전략: ‘주권적 지위’와 ‘분리 독립’

민족 집단 속에서 하나의 일정한 선호가 형성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다양한 선호가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생태주의적인 결정론 내지 합리적 선택의 가정을 가지고 민족 집단의 동원 과정에서 일정한 선호가 정해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타타르스탄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선택의 과정은 있기 마련이고 바로 여기에서 쟁점과 투표자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역동적 상호 작용이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동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정치인들에 의한 쟁점 형성 및 선택의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조건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³⁷⁾ 이런 맥락에서 타타르스탄의 공화국 민족주의와 체첸의 종교적 민족주의의 상이한 발전과정을 설명해주는 강력한 요소로 엘리트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엘리트는 변혁을 위한 전략으로 자민족의 전통을 재발견하거나 재규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포함하여 구소련에 속하였던 15개의 공화국은 각각 독립된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신생 러시아 연방 내에는 140여개의 소수 민족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20여 민족은 주권적 지위 내지는 독립을 향한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연방 중앙에서의 권력 투쟁은 연방을 구성하는 행정 단위인 지방(주, 변강 등) 뿐만 아니라 민족 단위인 공화국, 자치구 및 자치주의 독자적 정책 지향을 강화해 감으로써 탈소비에트형 봉건화(post-soviet feudalization)³⁸⁾ 현상을 가속화하기도 하였다. 이

37) Giuliano(2000), p.313.

38) 이러한 시각으로는 다음을 참조. 김태환, “영토적·경제적 거버넌스로서의 신봉건주의

시기 러시아 연방은 국가재건설을 위한 노력으로 이 공화국들의 원심력적 지향성을 제어하는 데 최고의 관심을 쏟게 되었다. 타타르스탄은 1991년 12월 26일 “독립국가연합으로의 편입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1992년 2월부터 러시아 연방정부로의 조세 이양을 중단하였으며, 3월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공화국의 주권성과 천연자원의 공화국 귀속을 선언하였다. 일부에서는 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타타르스탄이 “독립을 선언하였다”고 해석하였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타타르스탄이 취한 일련의 입장표명에서는 공식적으로 ‘독립’이라는 표현 대신 ‘주권’이란 표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였다.³⁹⁾ 사실, 타타르스탄은 이미 1990년에 주권선언을 하였으며, 국민투표는 이에 대한 추인의 절차였다. 이 주권선언의 목적은 소비에트 연방의 틀 속에서 러시아연방 및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들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었으며,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주권적 지위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소련이 붕괴하였지만, 타타르스탄 국민들은 러시아 연방과의 등등한 관계만 보장된다면 러시아 연방과 타타르스탄 관계의 보다 큰 틀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존재하였다. 구소련 붕괴 직후 발표한 1991년 12월의 ‘선언문’에서도 독립국가연합의 구성원으로 잔류하면서 주권 공화국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았다.⁴⁰⁾

소련의 붕괴에 따른 상황의 변화는 타타르스탄 지도층으로 하여금

(neofeudalism): 탈사회주의 러시아의 경험”, 『한국정치학회보』 36-1(2001); Charles H. Jr. Fairbanks, “The Feudalization of the State,” *Journal of Democracy*, 10-2(April, 1999).

39) 이러한 차이점은 다음을 참조 김인성, “러시아 연방체제와 타타르스탄 민족주의”, 『민족연구』 8호(2002).

40) Vera Tolz, “Forging the Nation: National Identity and Nation Building in Post-Communist Russia,” *Europe-Asia Studies*, 50-6(September, 1998).

완전한 독립 노선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노선과의 연장선상에서 주권적 지위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 페레스트로이 카시기에 고양된 타타르스탄의 민족주의는 다른 어떤 민족 못지 않게 강하였다. 민족주의 정치단체들은 모두 완전한 주권과 독립을 요구하면서 강한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타타르스탄 대통령 사이미예프는 민족주의 세력과 조직들이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며 동시에 타타르스탄 공화국 내 세력 다툼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가 되자 종교적 호소력에 기초한 민족주의 세력들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연방 중앙과 타타르스탄 간의 쌍무 조약에 의한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진정한 연방제’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 연방의 틀 내에 남기로 결정하고 타타르스탄식 주권형성의 작업을 시작한다. 이러한 선택은 이미 타타르스탄적 정서와 문화라는 배경에서 형성된 국민들의 지지와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전략이 함께 어우러져 만든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택된 노선의 실현을 위하여 타타르스탄은 다음과 같은 전략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⁴¹⁾

첫째, 거래와 태협을 통한 연방 중앙과 타타르스탄 공화국 사이의 쌍무 조약의 형성이다. 1992년 3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연방정부와 86개 지방정부들 간 연방조약이 체결되고, 타타르 자치소비에트 공화국은 영토상의 변경 없이 명칭만 ‘타타르스탄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체첸과 함께 타타르스탄은 이 조약에의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후로 러시아 연방과 타타르스탄 정부는 긴 협상의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협상 과정을 통하여 1993년과 1994년 초반까지 천연자원, 원유수송, 군수산업, 조세,

41) 타타르스탄 엘리트의 전략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을 참조. 김인성(2002), pp.126-127.

외국과의 경제 관계, 은행 및 금융 정책 등과 관련된 협약들이 체결되었으며, 이러한 협약들은 1994년 2월 '러시아 연방 정부권력기구들과 타타르스탄 공화국 정부권력기구들 간의 관할사항의 제한과 권한의 상호이양에 관한 조약'에서 최종적인 형태로 집약된다. 주권의 획득에 대한 타타르스탄의 집요한 요구로 인해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연방의 혼란을 염려하면서 옐친은 1994년 2월 15일 타타르스탄 정부와 상기 조약을 체결하는 길을 택하였다. 이 조약은 러시아 연방과 타타르스탄 공화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합의문서일 뿐만 아니라, 이후 연방과 46개 지방 사이에 체결된 42개에 달하는 유사 조약의 기본 모델로서 역할하게 될 정도로 만큼 타타르스탄 식(式) 모델은 러시아 연방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⁴²⁾ 이처럼 타타르스탄 지도부의 주권 분할에 대한 선택과 협상 과정은 소위 타타르스탄 모델이라는 새로운 주권 분할 내지 공유의 유형을 만듦으로써 유혈적이며 갈등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복합적인 정체성과 정서를 지닌 다수의 타타르인들의 의식 속에서도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는 데 성공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타타르스탄의 극단적 및 분리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통제 전략이다. 상기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타타르스탄 지도부의 선택에 대해 많은 민족주의적 세력이 반발하였던 것도 사실이다.⁴³⁾ 사실, 사이미예프는 소련 붕괴를 전후하여 대(對)중앙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민족 주의 단체를 설립하기도 하였으며, 이들의 시위와 저항은 타타르스탄

42) 타타르스탄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Rravil Bukharaev, "The Model of Tatarstan," *Anthropology & Archeology of Eurasia*, 43-3(Winter 2004/05); H. M. Faller, "Repossessing Kazan as a Form of Nation-building in Tatarstan, Russia,"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22-1(April, 2002).

43) H. Davis, H. Hammond and L. Nizamova, "Media, Language, Cultural Change: Tatarstan," *Nations and Nationalism*, 6-2(2000).

측의 협상력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분명 민족주의적 열기는 타타르스탄 엘리트들에 의하여 활용되었다. 하지만 연방—타타르스탄 쌍무 조약의 체결은 지도부의 전략의 변화를 가져왔다. 자신이 주도한 연방과의 조약에 타타르스탄 공화국이 동등한 ‘국가’의 자격으로 러시아연방과 연합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조약을 통해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주권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타타르 민족 집단들에게 설득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정당성을 자신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종교적 및 민족주의적 집단들의 영향력을 분산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점권을 바탕으로 사이미예프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종교적 색채를 탈각시키고 민족주의적 정치 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었으며, 이후 ‘타타르 사회 센터’와 같은 온건한 민족주의적 단체는 물론 ‘조국—이티파’이나 ‘타타르 민족회의’ 같은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강경한 민족주의적 정치단체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공화국 민족주의’의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사이미예프의 전략은 공화국의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 중앙과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급진적 분리주의자들을 제어함으로써 공화국의 자율성을 현실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⁴⁴⁾

셋째, 민족주의 운동의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해 타타르스탄의 경제적 특혜에 대한 연방 중앙정부로부터의 양보를 획득하는 전략이다. 타타르스탄은 체첸과는 달리 러시아 연방의 경제구조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연방 대통령 엘친의 러시아 연방 통합성 유지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대가로 타타르스탄은 모호한 주권성이라는 상징적

44) Anatol Lieven, *Chechnya: Tombstone of Russian Power*(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8), pp.76-77.

선물과 더불어 경제적 혜택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쟁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사실 타타르스탄 지도부가 초기 민족주의적 ‘독립’을 향한 열망을 ‘주권적 지위’의 획득으로 수정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민족주의적 분리·독립 지향성의 배제와 자주적 경제 운용권이 가져 올 경제적 혜택에 대한 강조 전략이다.⁴⁵⁾ 이러한 엘리트들의 전략은 모스크바 와의 협상에서 주효하였다. 이로써 러시아인과 호혜적인 관계성 속에서 오랜 시간 평화적으로 공존하여 왔다는 타타르인들의 의식은 더욱 강화될 수 있게 되었고, 타타르스탄은 천연자원 및 산업 그리고 대외관계에 있어서 특혜에 가까운 자율성과 처분권을 획득함으로 연방 내의 지방 및 공화국들 중 손에 꼽히는 경제성장과 안정을 이룩할 수 있었다.⁴⁶⁾ 그리고 이것은 타타르스탄 공화국 내의 타타르 민족 뿐만 아니라 비(非)명칭 민족들까지도 지배 엘리트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내게 만든 중요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되었다.⁴⁷⁾

넷째,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타타르스탄 지배 엘리트들은 타타르스탄의 정체성을 민족적 기초가 아닌 공화국의 기초에 근거하여 형성하려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소위 ‘공화국 민족주의(nationalism of republic)’에 입각하여 추진된 ‘민족 포괄 정책’⁴⁸⁾은 타타르 민족이 아닌 공화국 내의 러시아인들을 포함하는 비명칭민족들(non-titular ethnicities)에게 타타르적 주권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타타르식

45) Gorenburg(1999), p.251.

46) “Tatarstan among fastest-developing Russian region,” *RFE-RL Tatar-Bashkir Report*(October 17, 2001).

47) Gulnaz Sharafutdinova, “Paradiplomacy in the Russian Regions: Tatarstan’s Search for Statehood,” *Europe-Asia Studies*, 55-4(January, 2003).

48) Gulnaz Sharafutdinova, “Chechnya Versus Tatarstan: Understanding Ethnopolitics in Post-Communist Russia,” *Problems of Post-Communism*, 47-2(2000), p.16.

공화국 민족주의에 입각한 공화국민 정체성에 대한 추구는 샤이미예프가 추구하는 주권적 지위에 대한 비명칭 민족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공화국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⁴⁹⁾

한편, 타타르스탄의 경우와 달리 체첸에서는 엘리트의 전략은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여타 민족단위 정치체와 마찬가지로 페레스트로이카 시기를 전후해 출현한 체첸의 민족주의는 다른 어떤 민족 못지않게 강하였다. 민족주의 정치단체들은 모두 완전한 주권과 독립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요구의 수위를 높여갔다. 이때 체첸 자치 공화국에서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잡은 두다예프는 자신의 정권적 기반과 지지 세력으로 종교적 색채가 강한 민족주의 단체들을 활용하게 되었다.

첫째, 두다예프는 샤이미예프의 ‘민족 포괄 정책’과는 달리 ‘민족 배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쿠데타를 통하여 권좌에 오른 두다예프 장군은 근본주의적인 민족주의 정책을 통하여 러시아와 대립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이력을 강화해 나가려 하였다. 1991년 11월 1일 자신의 첫 대통령포고령을 통해 두다예프는 체첸의 완전한 ‘독립(independence)’을 선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두다예프는 체첸 내 민족 간 관계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민족 배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소련이 붕괴를 전후한 1991년부터 1992년 전 러시아여론센터(VSIOM)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체첸에 거주 하던 37%의 (인종적) 러시아인이 체첸을 떠나고 싶어 했으며, 이는 어떤 다른 공화국보다 높은 수치였다.⁵⁰⁾ 러시아 이민국에 따르면, 결국 1991~1993년 사이에 9만여 명의 러시아인들이 체첸을 떠났다.⁵¹⁾ 이는

49) Giuliano(2000), pp.310-311.

50) Yu. V. Nikolaev, *The Chechen Tragedy: Who Is to Blame?*(New York: Nova Science, 1996), p.5.

51) Valeriy Tishkov, *Ethnicity, Nationalism and Conflict in and after the Soviet Union: The Mind Aflame*(London: Sage, 1997), p.209.

체첸에서 모든 민족의 법적인 평등이 보장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차별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두다예프는 체첸 내의 러시아인들에 대한 “전쟁”을 공공연히 선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러시아인들은 공무직에서 해고되었고, 기업 내 러시아인 경영·관리자들은 직장을 잃었다. 심지어 러시아인들에 대해 조직적인 폭력에 의한 공격도 감행되었다.⁵²⁾

둘째, 두다예프는 철저한 탈러시아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였다. 두다예프는 러시아 국수주의에 대한 신경증적 반발을 지니고 있었으며, 러시아와 연방정부에 대한 적의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체첸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점의 원인으로 연방정부를 비난하였고, 러시아 정부가 체첸의 경제를 과괴하기 위한 공작을 진행 중이라는 언급을 서슴없이 일삼았다.

셋째, 두다예프와 권력 엘리트들은 주변 무슬림 지방 내지 국가들의 지지를 동원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타타르스탄은 러시아의 한 가운데 위치한 데 반하여, 체첸은 주변 이슬람 독립국들 및 이슬람 공화국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타타르스탄의 민족주의자들에게조차도 이러한 지리적 요인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타타르스탄의 대중들의 인식 속에도 지리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한 가운데 위치하는 타타르스탄의 완전한 독립은 이상적으로 실천적으로 모두 편안히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체첸의 분리주의자들과 두다예프에게는 체첸이 러시아의 변경에 위치한다는 점이 체첸의 완전한 독립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으로 비쳐졌다. 비록 지리적 요인이 양국의 상이한 민족주의 전략을 가져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파생된 이슬람 세력의 국제적인 연대 여부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체첸의 군벌 및 저항엘리트들의 예상과 달리

52) Sharafutdinova(2000), p.16.

다케스탄이나 여타 북카프카즈 지방의 체첸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호응은 미약하였고, 이슬람 국제주의의 지원도 1차 체첸전쟁이 끝난 이후에야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⁵³⁾

(3) 제도: 공화국 민족주의와 종교 민족주의

지배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이 상이한 결과를 가져 온 결정적인 요인인 되었음은 이미 밝힌 바와 같으나, 이는 엘리트의 선택이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샤이미예프가 체첸의 대통령이었다면, 그가 타타르스탄에서 펼친 온건한 정책을 펼칠 수 없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미 그 사회와 구성원들이 지니는 제도와 정체성의 인식이 전통의 형태로 허용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체성의 형성과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은 실재하는 영향력이나 발명된 형태의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새로운 전통을 제도의 형태로 남기게 된다.

타타르스탄과 체첸에서는 각각 공화국 민족주의(nationalism of republic)와 종교 민족주의(religious nationalism)라는 상이한 제도적 전통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었다. 이 상이한 두 민족주의의 형성과 관련된 제도의 측면은 과거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의의를 지닌다.

제도의 과거적 의의라는 견지에서 볼 때 지적될 수 있는 특성은 바로 엘리트의 연속성과 소련 시기 권력구조의 연속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타타르스탄의 경우, 샤이미예프와 그의 참모들은 소비에트 시기부터

53) 외부 이슬람과의 접촉과 협력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Yagil Henkin, "From Tactical Terrorism to Holy War: The Evolution of Chechen Terrorism, 1995–2004," *Central Asian Survey*, 25-1, 2(March–June 2006); N. Mirikhanov, "Cooperation, Friendship and Mutual Assistance," *International Affairs*, No.51(2005).

당시 타타르스탄 자치 공화국의 권력구조의 핵심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공화국 내 필요와 그것을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방법을 아는 조직과 제도는 존속되고 있었다. 만약 이러한 권력 엘리트 및 권력구조의 연속성이 없었다면 체제 전환기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과격한 분리주의적 민족주의가 좀 더 파괴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체첸에서의 사태 전개가 그것을 증명한다.

두다예프는 쿠데타를 통하여 체첸 공산주의 지도부를 전복하였고, 기존 소련 권력구조를 해체하였다.⁵⁴⁾ 그리고 독립의 실질적 문제보다 독립이라는 형식과 이상을 추구하였던 두다예프는 정부기구를 결코 강화 하려 들지 않았고, 공화국의 권력과 권위는 분산되어 타타르스탄에서 가능했던 정부의 선거동원과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두다예프의 모순적인 대통령 포고령은 법령에 대한 회의주의를 만연하게 하였다. 체첸에서 마피야 현상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고, 범죄조직이 확산되었으며,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다예프에게 열려진 길은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적에게 돌리면서 적과의 근본주의적 투쟁을 추구하는 노선을 쫓아 자신을 북카프카즈 전쟁의 영웅 샤밀의 뒤를 잇는 민족적 영웅으로 분(粉)하여 권력을 지키는 것이다.⁵⁵⁾ 바로 이런 엘리트 전략과 결부된 제도적 조건이 체첸에서의 ‘종교 민족주의’의 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타타르스탄의 경우에는 엘리트 조직의 연속성 속에서 점진적으로 국가성을 획득해 나가는 전략의 추진이 가능하였고, 소비에트 권력구조는 점차 공화국 행정을 위한 구조로 전환되어 갈 수 있었다.⁵⁶⁾ 이러한

54) Lieven(1998), p.60.

55) Sharafutdinova(2000), p.18.

구조적 안정을 바탕으로 구(舊)엘리트들은 민족주의적 의제를 대면할 여유를 가지고 분리주의 및 인종적 민족주의의 요청들을 활용하여 연방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리한 내부적 시도들을 무마시키면서 사회·경제적 안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통합적 ‘공화국 민족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형성된 체첸의 종교 민족주의와 타타르스탄의 공화국 민족주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하여감으로써 그 미래적 의의를 획득하게 된다. 새롭게 형성된 제도로서의 의의를 지닌 각각의 민족주의는 다양한 제도적 기재들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새로운 전통을 형성하는 준거가 되는 것이다.⁵⁷⁾

가령 타타르스탄에서 타타르 민족 문화의 부활도 강조하였지만, 동시에 공화국 내 소수 민족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 다민족 사회적 특성을 강화하여 나간다. 러시아어와 타타르어를 공식 언어로 동시에 채택하면서 타타르 공화국인과 러시아 국민이라는 이중 국적도 허용하게 된다.⁵⁸⁾ 민족 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발전시키는 민족 포괄정책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타타르스탄민족회의’와 같은 조직을 강화하게 되었다.

한편, 체첸에서는 구엘리트들을 대신하여 새롭게 등장한 군 출신 지도자들의 군사주의적 정책은 이슬람의 종교적 상징을 활용하는 경향을 강화하면서 종교와 민족주의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종교 민족주의의 분파가 형성되었다. 두다예프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근본주의

56) Lieven(1998), p.77.

57) 러시아인과 타타르인의 동화에 대한 사이미예프의 주장은 다음을 참조. Mintimer Shaimiev, “We Are One Family with the Russian People,” *International Affairs*, Vol.51(2005).

58)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는 타타르스탄 공화국 헌법(www.tatar.ru에 영문판 있음)에 명시되어 있다.

운동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미 1차 전쟁 말기에는 카프카즈 전쟁의 영웅 샤밀의 성전(Jihad)에 대한 상징적 언급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영웅화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⁵⁹⁾ 이러한 종교 민족주의 분파의 성립으로 인해 북카프카즈 이슬람 운동 전체를 근본주의적 과격주의자로 규정하는 언론과 러시아 연방정부의 선전에 의해 체첸은 극단적 대립구도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다만 다게스탄의 경우 지도부의 정책에 의하여 무장투쟁과 분리주의를 회피할 수 있었지만, 체첸의 경우 지도부의 정책은 이를 방지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⁶⁰⁾

문제는 1990년대 전반 북카프카즈의 이슬람 운동이 와합주의(Wahhabism)의 영향으로 점차 과격화되어가고 있었다는 점인데, 특히 이웃한 다게스탄에서는 마고메도프(Bagautdin Magomedov)가 '다게스 탄이슬람결사(IDD)'를 중심으로 의회에 진출하려는 시도와 함께 다게스탄과 체첸에 군사 훈련소를 설치하여 근본주의적 와합주의에 기초한 성전(Jihad)을 비(非)무슬림에게만이 아니라 순수 이슬람을 지키려는 행동에 반대하는 온건주의 수피즘 형제단 및 지방정부에 대하여 시도하려고 하였다. 이런 근본주의적 와합주의자들의 근거지는 다게스탄이었지만, 다게스탄에서는 지배 엘리트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러시아 무력을 도움을 받아 와합주의 운동에 대한 통제를 90년대 중반 즈음에는 성공하게 되고 와합주의 전사들을 다게스탄으로부터 몰아내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⁶¹⁾

59) 체첸전쟁에서 나타난 이슬람적 담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cott Radnitz, "Look Who's Talking! Islamic Discourse in the Chechen Wars," *Nationalities Papers*, 34-2(May, 2006).

60) 체첸과 다게스탄의 이슬람 정치동원에 대한 비교는 다음을 참조 Moshe Gammer, "Between Mecca and Moscow: Islam, Politics and Political Islam in Chechnya and Daghestan," *Middle Eastern Studies* 41-6(November, 2005); Giuliano(2005).

61) Giuliano(2005), pp.205-210.

하지만 1차 체첸전쟁을 치른 이후 체첸의 종교 민족주의는 심각한 근본주의화를 경험하게 된다. 반군지도자들과 군벌들 사이에서 와하비즘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도구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다. 카디로프 대통령의 와하비즘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는 그러한 와하비즘의 확산을 부추겼다. 체첸에서는 1차 전쟁 이후 이슬람 종교법에 기초한 샤리아(Shari'a)법이 제정되어 '아다트(adat)'라는 관습법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고, 샤리아법의 수호자들이 와하비 전사들과 공화국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엄격한 종교적 교의를 강조하는 이러한 비현실적 법체계는 체첸의 일상과 잣은 충돌을 일으켰고 체첸의 제도로 정착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체첸과 북카프카즈에서 와하비즘이 위력을 발휘한 것은 요르단 출신의 용병 카타브(Khattab)이 다게스탄에 훈련소를 세운 뒤이며, 특히 다게스탄의 바가우틴(Bagautdin)이 체첸에서 활동을 시작한 1998년 이후부터다. 이후로 와하비즘에 반대하면서 온건주의 수피즘의 전통을 새롭게 부활시켜보려 했던 마스하도프 체첸 대통령의 시도도 샤리아(법체계)에 기초한 이슬람 신정국가의 독립과 건설을 주장하는 강경파 군 지도자들에 의하여 좌절되었으며, 마스하도프의 와하비 금지령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해제된다. 결국 종교적 전통을 민족주의적 의도와 병치시켰던 체첸식의 종교 민족주의는 극단적 와합주의자들과 근본주의적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동맹을 가져왔고, 이들의 압력으로 마스하도프는 샤리아(법체계)에 의한 체첸의 통치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첸식 종교 민족주의의 제도화와 그에 따른 테러리즘과의 연계는 결국 2차 체첸전쟁이라는 더 큰 비극을 가져온 조건으로 작동하게 된다.⁶²⁾

62) 이 과정에 대해서는 Giuliano(2005), pp.210-215를 참조.

4. 결론: 문화적 전통 차이와 상이한 민족주의

먼저,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 필자의 이런 연구 결과는 어쩌면 체첸의 비극은 체첸인이 자초한 것이라는 식의 체첸 민족 책임론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체첸의 비극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러시아의 민족 정책 및 러시아의 체첸에 대한 정책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좀 더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 민족의 문화적 요소에 의하여 형성된 전통의 내적인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민족주의의 외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밝혀줌으로써 비교적 유사한 조건하에 놓인 체첸 민족과 타타르 민족의 민족주의 발현이 어떻게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문화와 연관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본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3〉 체첸과 타타르스탄에 나타난 세 차원의 전통에 대한 분석

구분	정체성 차원의 전통	전략 차원의 전통	제도 차원의 전통
타타르스탄 공화국	복합정체성의 정도 높음	주권적 지위 추구 전략 - 민족주의 통제 - 민족포괄 정책	공화국 민족주의 엘리트 및 권력구조 연속성 이중국적/이중공용어 허용 단계적 국가건설 지향
체첸 공화국	복합정체성의 정도 낮음	분리·독립 추구 전략 - 민족주의와 종교의 결합 - 민족배제 정책	종교 민족주의 엘리트/권력구조 단절 와하비즘과 결합 무리한 사리아법체계 추진

이 연구 결과가 지니는 이론적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통을 통해 빌현되는 문화 및 이념의 요소가 강하게 작동되는

정치 및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는 것은 안정적인 시기가 아니라 위기나 체제 전환과 같은 정치·사회적 불안정 시기이다.

둘째, 특정한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요소가 민족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적 요소의 단독적 작용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전통이라는 문화와 사회의 소통공간을 통하여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때 전통은 그 집단의 정체성, 엘리트의 변혁 전략, 그리고 제도의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민족주의 내지 민족주의 정책은 그 주체인 민족이 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문화에 기초한 이념으로서 제도를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다.

셋째, 체첸과 타타르스탄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민족주의의 발현과정에서 그 발전 경로를 규정하는 가장 일차적인 요소는 지배 엘리트가 변혁의 전략으로 선택한 정책을 들 수 있으며, 이때 이러한 전략의 선택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대중들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바로 허용적 조건으로서의 전통의 규제적 성격이 드러난다.

넷째, 이러한 허용적 조건으로서의 정체성과 전략적 선택이 결합하여 나타난 제도는 다시 이후 민족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규제적 역할을 더해가게 되며, 이는 일정한 정도의 경로 의존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발전 경로의 형성의 배경으로서 문화가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좀 더 면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논문 접수일 4월 26일, 심사 완료일 6월 8일

East Asian Regionalism and Culture: Comparative Analysis on Korea and Japan

Bong Jin Kim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Kitakyushu

Entering 21st century, now we are looking at a conspicuous change in East Asia or North-East Asia. It is a project of 'East Asian/North-East Asian Community ('Community'),' appearing in process of the regionalization which adapts to and resists globalization. This paper examines and compares the 'regionalism and culture' in the project of 'Community' of Korea and Japan. Before doing this, I will see movements of Korea and Japan for their projects of 'Community,' and compare their characteristics. Then, I will clarify how the Korean side and the Japanese side understand the character of culture and what goals and approaches the two sides set up for culture-cooperation. Thirdly, I will argue some problems of understanding the culture, goals, and approaches lying in the project of 'Community', and suggest the concepts of 'publicness or public-commonness' and 'publicization' of culture. But I will adopt the method of explaining the tri-dimensional thinking and its logic which are the basis of the two concepts above. Lastly, I will briefly tackle the problem of overcoming the spell of the modern/modernity as Korea and Japan's common task in order to construct the 'Community.'

Keywords: East Asia, North-East Asia, community, culture, homogeneity, variety, publicness, public-commonness, publicization, tri-dimensional thinking, the spell of the modern/modernity

Culture and Nationalism: Comparison of Two Republics of Tatarstan and Chechnya

Beom-Shik Shin

Department of Politics and Diplomacy, University of Incheon

This article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ationalistic responses of Tatarstan and

Chechnya to the process of federalization in Russia, to analyze the impact of cultural tradition on nationalism. It leads to investigation on political implications of culture and relations between culture and nationalism. Cultural factor in nationalism under certain conditions does not operate independently; rather, it reveals itself through tradition, the communicative interface of culture and society. Tradition, in this context, should be understood in three levels—identity of the community, reform strategy of elite groups, and institution. Ultimately, nationalism or nationalistic policy can be realized by way of institution, the ideology based on culture, under historical condition the nation is facing with. The comparison of the two nations resulted as follows: a prime factor to determine the different course of nationalistic responses can be found at the different policy which ruling elites have chosen as reform strategy. The strategy has been selected within the acceptable range of populations' understanding, and manifested as the identity under the historical and religious experience and socio-economic condition. Institutional factor, the mixture of identity and selected strategy, has strengthened the rigidity to differentiate development either into the nationalism of Republic of Tatarstan or into the religious nationalism of Chechnya. All in all, the impact of culture as the background of certain developmental path, can be analyzed by investigating their tradition as identity, strategy, and institution.

Keywords: culture, nationalism, Tatarstan, Chechnya, identity, strategy, institution, religious nationalism, nationalism of republic

"The Korean Wave" and East Asian Cultural Networks

Sangbae Kim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the so-called "Korean Wave" is booming as the Korean cultural products, such as TV drama, popular music, and movies, are being actively exported to East Asian countries. Moreover, the success of online game industry and Internet community services is regarded as an example reflecting the rosy future for digital contents industries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Wave"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cultural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The main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we